

학교협동조합 만들기- 국사봉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국사봉중학교, 교사 | 윤우현
whyoon@sen.go.kr



들어가며

지난 5년간 국사봉중학교에서 서울형 혁신학교를 운영해 왔던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압축한다면 ‘민주주의’이고, 세월호 사건을 포함한 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부분 미흡한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만큼 민주시민교육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화두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 속에서 체득할 수밖에 없다.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생활문화 혹은 몸으로 배우는 민주주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에서 앎과 삶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마을연계형 교육과정의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사봉중학교는 공동체 생활협약을 선택했었고, 매우 유의미한 민주시민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생활문화로서 민주주의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사회적 삶, 공동체적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을연계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그 자체가 마을연계형 교육과정일 뿐만 아니라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창립을 준비하게 되었다.

생태 주제탐구를 하면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도 함께 결합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하였을 때, 그 첫 번째 내용이 협동조합 7원칙이었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이루어진 7원칙은 민주, 평등, 참여, 자율, 교육, 협동,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생활문화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수립한다면 생활협약과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의 두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지역과 교육이 별도의 분리된 행정체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협동조합의 운영은 학교와 마을이 좀 더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교육 공간에서는 매우 생소한 학교협동조합 만들기는 말 그대로 장애물 경주 같았다. 처음 학교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愚公移山(우공이산)’처럼 지난하기만 했다. ‘학교에서 무슨 협동조합?’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잡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수도 가고, 프로젝트 활동도 하고, 박람회 참관도 하고, 축제 때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생길 즈음, 학교교육계획에 포함시켜 협동조합 창립 준비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함께할만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의 창립 절차도 만만치 않았다. 교육부에 인가를 받고, 지방법원에 공증하고,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걸맞은 공간을 확보하고 꾸미는 일도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생태에너지 전환 활동, 장학금 지급, 다양한 나눔과 돌봄, 사회적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학교협동조합을 출범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들이 운영팀(자원봉사팀)을 만들어 매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 수익의 전부를 학생복지와 사회적 경제 실천 활동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동아리를 만들어 사회적 경제 실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창립 첫해인 올해의 국사봉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의 1차 목표는 생태매점(그냥가게)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학교교육과정과 결합시켜 민주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마을과의 사회적 연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물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사회적 경제 만들기,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생태에너지전환 마을 만들기, 민주적인 마을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마을이 학교다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는 남다른 면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 300년 걸린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60년으로 압축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세대를 거치며 낡은 체제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 기보다 한 세대가 여러 시대의 변화를 한꺼번에 겪어야만 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제대로 극복되지 못한 채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압축 성장과정에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생활과 학습이 분리됨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정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겨났다. 공감능력, 생태적 감수성, 공동체적 인간관계,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 생활교육, 인성교육, 집단지성의 공동체문화를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소외-일탈문화도 그렇고 우리 사회 청소년 문제의 태반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악순환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후유증은 공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청소년 자살률 세계1위, 교실붕괴, ‘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 교육 등과 같은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입시교육과 배타적인 성적 경쟁, 세계 최장 수준의 학습시간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는 여전히 학교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학교라면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배움의 즐거움은 삶 속에서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삶과 배움이 분리된 학습은 그 자체로 소외를 낳는다. 그런 의미에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전히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지침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마을에는 그야말로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살아있는 혁신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삶과 학습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과 교육과정을 통해 삶과 삶의 결합을 얼마나 잘 구성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의 지적 흥미를 자극하고, 열중해서 몰두하게 하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갖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교사는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란 미명하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삶과 삶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은 교사가 가르치고 전달하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이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만들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사의 역할은 지식의 전수자가 아니고, 학습자 개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개인의 경험적 기술과 지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학생의 의견과 관심이 반영된 학습 결과를 이끌어 주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결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이 학교다’와 같은 마을연계형 교육과정은 ‘배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여러 주제들을 구체적이고 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보다 넓고 깊게 탐구해나갈 수 있는 창의성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혁신학교가 이러한 빈자리를 채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1년에 ‘마을이 학교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수업 중에 마을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교 교육과정과 결합시킬 수 있는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다 보니 우리

학교 주변에도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려는 풀뿌리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었고, 생활공동체(생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간의 거리를 좁히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 목공소(성대골 별난공작소), 마을 작은 도서관, 마을 카페, 마을 축제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하고 교류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아서 주말농장에서 생태강좌로, 방과 후 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 나아가 2~3학년 전체 마을생태수업, 마을과 함께하는 나눔 수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전국 100대 학교문화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이 학교다' 프로젝트 활동은 매우 소중한 교육과정이다. 2013년에는 마을공동체(생태) 수업연구 동아리가 만들어져 생태에 관한 교과통합 주제탐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생태잡지를 만들면서 마을공동체와 생태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를 모아 마을-학교 생태공동체 축제를 개최하였다. 2014년에는 생태 수업연구 동아리를 중심으로 '원자력하나 줄이기-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주제탐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에너지 적정기술을 체험하고,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수업 중에 <에너지전환 카페>를 건축하였고, 40여개 생태에너지 주제탐구 모둠이 만들어져 각 가정마다 에너지 컨설팅을 실시한다거나 마을 생태축제를 함께 기획하고 역할 분담을 하기도 하였으며, UCC를 제작하여 발표회를 갖기도 하였다. 학년말에는 마을-학교 생태공동체축제도 개최하였다. 2015년에도 생태에너지 주제탐구수업을 마을 협동조합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모아 생태축제를 개최하였다. 또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 학교협동조합을 창립하였으며, 학교협동조합을 중심

으로 학교구성원들(교사, 학생, 학부모)이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협동경제를 실현해 나가면서 마을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등 사회적 공유 활동을 비롯한 공익적 실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서울형 혁신지구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공동체교육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표1〉 '마을이 학교다' 프로그램

마을 공간	마을이 학교다 프로그램	네트워크
성대골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책 읽어주기(그림책 만들기 수업) -그림자 공연 수업 -생태 축제 함께 만들기 -방과 후 에너지 컨설팅 인턴십/ 에너지 절전소 운영 -기후변화대응, 적정기술수업, 에너지 전환 카페 만들기 수업 : 주제탐구 발표대회 -지역에너지 축제 참가, 생태에너지 캠프 운영하기 -에너지 전환카페, 사회적 협동조합 함께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생태동아리 - 학부모 생태동아리 - 학생생태동아리 -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헨즈'
동작 FM 라디오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방송동아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 생태 방송수업(지역방송 토론 수업하기) - 청소년 마을 신문 만들기 - 마을 탐방 체험 프로그램 운영(아름다운 가게, 송실대, 중앙대, 법원, 성대골, 현충원 등) - 재래시장 탐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과 - 교사생태동아리 - 방송부
좋은세상 '풀씨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텃밭 수업 함께하기(꿈들이) - 주말 생태문학기행 함께하기(마을 생태 해설) - 마을과 함께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 지역사회 생태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생태동아리 - 교사 생태동아리 - 학부모 생태동아리
동작구청 구의회 동사무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혁신 우선지구 네트워크, 특색사업 예산 지원 - 마을축제, 마을 알뜰매장, 에너지 절전, 봉사활동, 돌봄 프로그램 등 교류 - 청소년 리더쉽 캠프, 선거 모의체험(선관위), 모의 의회, 다문화 가족 지원, 지방자치 수업(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혁신부 - 학생자치부 - 진로상담부
동작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청소년 진로 동아리 운영 - 진로직업 체험센터 연계 체험활동 지원 - 학교와 함께하는 돌봄, 나눔, 민주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혁신부 - 학생자치부

국사봉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부모-학생 연수 (인문학 강의, 생태, 자녀교육) -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생태 교육 - 지역사회 네트워크 만들기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제탐구수업 (생태, 독서, 진로, 민주시민 등) -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기 (학생 동아리 활동) 	- 교사수업연구 동아리
---------	--	--------------



앞과 삶이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징검다리,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기’

국사봉중학교는 서울형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연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특히 학교의 중장기 교육목표인 앞과 삶이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4년간 <마을이 학교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이 학교다>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나눔과 돌봄, 공감·소통과 호혜·평등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생활공동체 교육, 실천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에 걸맞은 방식을 찾아보다가 학교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15년 2월 학교 교육계획 차원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학생회 협동조합 동아리 구성, 학부모 총회 의견수렴, 2학년 전체 학생교육, 학부모 연수, 워크숍 개최, 컨설팅, 탐방, 체험부스 운영 등 공유 및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마침내 학교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되었다.

국사봉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은 매점을 운영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대부분 장학금과 학교교육활동 지원, 생태에너지쿠폰 발행, 지

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매점 운영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생태에너지전환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절전소 운영, 체험활동 등도 함께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상근 간사는 매점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했던 마을 연계 교육 및 활동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하여 마을 교육 플래너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분과별로(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각각 분과별 협동조합 동아리로 운영하여 마을-학교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철저한 민주적 운영원칙을 바탕으로 3주체(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모든 조합원이 출자금액과 상관없이 1인 1표를 갖는 민주적인 생활공동체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학교협동조합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마을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여 마을과 지역차원의 다양한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2〉 국사봉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 경과

일정	활동	비고
2011년 3월 ~2014년	'마을이 학교다' 프로그램 운영	
2015. 2월	2015 학교교육계획 반영(학교협동조합 설립)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추진단 학부모연수 신입생 학부모 안내	학교 교육계획 토론
2015. 3월	학생회 상설동아리 조직(학교협동조합 동아리 12명) 학부모 총회 의견수렴	학생회 학부모회
2015.3~7월	2학년 생태교육과정 운영 -사회적 협동조합 주제탐구 수업 포함	2학년 학생 전체 성대골, 핸드
2015. 4월	가정통신문 2회: 학교협동조합 운영 안내	학교
2015. 5월	학교협동조합 워크숍 개최 -교사, 학생, 학부모 연수, 학부모 준비팀 구성(7명) 독산고 학교 협동조합 탐방, 연수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추 진단장 강의, 질의응답 독산누리 이사장
2015. 6월	학교협동조합 컨설팅 2회(교사, 학부모)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추진단

2015. 7월	생태축제 개최 : 학교협동조합 부스 운영 -협동조합 박람회 참관(일산 킨텍스)	학생회, 동아리
2015. 8월	국사봉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준비 모임 3회(발기인 대표 5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대표 5인
2015. 9월	발기인대회(정관, 사업계획, 추진 일정) 설립동의자 모집(9월3일~17일) 설립총회 공고(9월 7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9월10일)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 지역사회 참관
2015.9.18	국사봉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총회 개최	
2015.12.10	창립기념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나누기 (150포기)	상도4동
2015.12.23	국사봉중학교 북카페 개소식	동작교육혁신지구 사업
2016.2.2	교육부 인가	
2016.4.6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표3〉 국사봉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 방향

영역	주요 활동 방향	비고
학교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생태·에너지 주제탐구 활동 지원 사업 • 사회적 경제 교육·체험활동 지원 사업 -우리 마을 문제해결 프로젝트 운영(공모) -사회적 협동조합 탐방 및 체험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진로 체험 기회 제공 	
학생건강증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협동조합 매점 운영(그냥가게) -생태 먹거리(70%이상), 학용품, 공정무역 물품 등 • 바른 먹거리 교육사업 및 학생건강증진활동 지원 사업 • 학교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참여, 공동구매 참여 	
생태에너지전 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에너지 쿠폰 발행 -생태에너지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생태에너지 전환 주제탐구 프로젝트 활동(발표회) (공모 신청을 받아 생태에너지 전환 쿠폰 지급) -학생자치활동 지원 •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에너지 전환 활동 -마을축제, 캠페인, 생태에너지 탐방, 캠프 운영 참여 • 국사봉 햇빛 발전소 단계적 추진 	
교육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공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문화공간 북카페(라운) 운영 -사회적 공익을 위한 이벤트 운영(홍보, 캠페인, 공익활동 공모) -아나바다 운영 -나눔 활동 활성화 및 기부문화 조성 • 학생 필요물품 대여 : 우산, 실내용, 교복, 체육복 등 • 학생 장학사업 	
기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네트워크 활동(교육, 체험, 워크숍 등) •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표4〉 세부사업계획

일정	2016년 세부 사업 계획	북카페(라운)/매점(그냥가게)
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사회적협동조합 동아리 조직 • 이사회(월1회),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위원회(주1회) 운영 • 학교협동조합 홍보 및 조합원 모집(학생, 학부모, 교사) • 라운, 그냥가게 판매물품 및 에너지쿠폰 등에 관한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물품 확정 및 단가 결정 - 생태에너지 전환쿠폰 활용방안 - 학생복지 물품 공동구매, 대여 시작 - 학생교육복지 재능기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판매 시작 - 학생회 사회적 협동조합 동아리 - 학부모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위원회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협동조합 탐방(삼각산고, 독산고 등) • 사회적협동조합 참여예산 공모 	- 협동조합원 교육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협동조합 주제탐구 발표회(생태에너지전환 발표회 포함) • 마을 생태축제 참여 • 아나바다 장터 운영 • 학교 매점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워크숍 (체육대회 포함) - 생태에너지전환 체험활동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기 판매물품 의견수렴(물품 확정, 단가 결정) • 2학기 재능기부 공모 	
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공유행동 공모 (아무거나 프로젝트, 동작구 참여예산 신청) • 김장나누기, 장학금 지급 • 2학기 학교매점 만족도 조사 	
17.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결산 및 평가 • 2017년 2월 정기총회 준비 	



배움(앎)과 나눔(삶)이 함께하는 민주시민 교육과정 만들기

1기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2015년 제2기 서울형 혁신학교를 시작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졌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아이들 중심의 수업,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틀을 넘어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아이들의 삶 그 자체가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수업 속에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년 동안 ‘마을이 학교다’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추진했던 ‘마을연계형 교육활동’이 수업과 학교

교육과정 속에 자리매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 동안 마을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수업과 연계된 마을 탐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여전히 교사 개개인의 선택과 수업연구 동아리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학교 교육과정과 맞물리지 못하고 겹도는 경우가 많았다.

〈표5〉 앓과 삶이 함께하는 민주시민 교육

서울형 혁신학교 기본 철학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공감·소통의 교육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배움·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중장기 비전	배움(앓)과 나눔(삶)이 함께하는 민주시민 교육					
국가봉중 교육목표	배움과 돌봄으로 행복한 민주시민 되기		나눔과 소통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시민 되기			
학년별 교육목표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교육과정 협의회 -수업연구 및 교과재구성	자기성찰로 자존감 키우기		공감·소통하는 능력 기르기, 인권 존중		나눔·배려 실천하기	
-학년특색 주제탐구 프로젝트	1인 1주제탐구 (자기성찰, 자존감)		1인 1주제탐구 (공감, 소통, 인권)		1인 1주제탐구 (나눔, 배려)	
	자유학기제, 진로 (나의 꿈 탐색하기)		학급뮤지컬 Musical makes me Open !!		독서 -책 읽고 관심사 찾기 (나만의 책 만들기)	
민주시민 교육과정	1. 민주시민 교육주간 운영 (7월,12월) - 민주시민 주제탐구를 위한 교과재구성(동아리 등) : 자기성찰, 공감소통, 인권, 나눔과 돌봄, 배려, 사회적 협동, 생태적 삶, 생활협약 등 - 주제탐구 결과발표 및 원탁토론 2.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3. 공동체 생활협약운영과 연계					
주제탐구 체험활동 및 발표회	나의 꿈 올림피아드 (학기말 실시)		뮤지컬 발표회 (학기말 통합)		독서 주제탐구 발표회 (학년말 실시)	
과정 중심 평가 확대	학생 자치활동 중심 주제탐구 발표회 운영 - 생태 에너지 전환,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 생활협약(민주시민 교육) 주제탐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평가 확대 등					
학생 맞춤형 성장발달 책임제	포트폴리오를 작성 관리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성장발달 지원 - 관심 주제탐구 영역별로 활동 과정과 결과물 정리(파일) - 자기주도 주제탐구 활동과정 정리(월1회, 창체시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로 하였다. 위의 표는 2015년 만들어진 주제탐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2016년 국사봉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계이다.

2014년 11월, 교사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앎과 삶이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만들기 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교육과정을 10개 정도 추출한 후, 그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영역(대주제)들을 중심으로 교사,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 세부내용을 선택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학년별 교육과정으로 구체화하였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교육철학이 학년 교육과정에 녹아들어가고 각각의 수업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년별 교육과정협의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학년별 교육과정협의회가 학년별 교사학습공동체로서 ‘앎과 삶이 함께하는 주제탐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각각의 장점이 더해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장단점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따뜻한 집단지성 문화가 정착되도록 공을 들여야 한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년교육과정협의회와 학생자치활동, 사회적 협동조합 간에 긴밀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사봉중학교에서는 배움(앎)과 나눔(삶)이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추구하되 조금 돌아가더라도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각각 잘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5년간의 공동체 생활협약의 운영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중학교 학생들이 자율, 자치, 협약을 통해 ‘생활공동체’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까? 생활협약을 이해하고 그 의미에 걸맞게 만들어 갈 수 있

을까? 처음에는 많은 교사, 학부모들이 “아직 수준이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국사봉중학교 구성원들은 5년여의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도 자율, 자치, 협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스스로 집단지성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몇 단계 높은 수준의 민주적인 생활공동체문화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활동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수업시간이기 때문에 수업과 연계되지 않은 모든 활동은 이벤트로 지나가버리고 만다. 그럴 경우,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 결합되지 못하고 걸돌게 된다.

학교협동조합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경제를 체득하고 스스로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사봉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출발점에서 있지만 생활협약처럼 잘 정착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배울 능력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마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삶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생활공동체를 온전하게 돌려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마을은 생활공동체로서 기능을 회복해나가야 한다. 그 징검다리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학교협동조합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중등교육의 본령은 ‘민주시민교육’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삶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서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꽃피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